

이치이
심주심

시

A Life of
the Common
Minimalist

2023.5.4 - 6.11

이지송 개인전

가

복합문화공간 **웃다리문화촌**
북합문화공간 웃다리문화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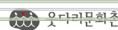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용소금각로 438-14

OPEN 9:00 - CLOSE 18:00 월요일 휴관

문의 031 667 0011

www.wootdali.or.kr

[instagram.com/wootdali_official](https://www.instagram.com/wootdali_official)







Artist

이지송

b.1946

90년대 후반 광고계에서 은퇴한 이후 여러 비엔날레와 영화제 등지에 영상 작품을 출품했으며 수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작가는 여행지에서 만나는 거리, 공간, 사소한 것들과 버려진 것들을 영상으로 ‘채집’하여 작품을 만든다. 광고계를 떠난 이후로 미리 짜놓은 기획을 가지고 작품을 만든 적이 없는 그는 거창하지 않은 하나의 화두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 최대한 의도를 배제한 작업을 하고자 한다. 영상을 채집하고 작업하는 과정은 작가에게 사유를 위한 수단이다.

작가는 주로 이동과 촬영이 용이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즉흥적으로 작업을 한다. 특별한 색감을 생각하고 시도해본 적도 있지만 고집하지 않는 것이 작가의 철학이다. 자연스럽게 만나는 순간을 채집하는 것이 곧 이지송의 작품이 된다.

Major Solo Shows

- 2023 <압축의 시간>, 옷다리문화촌, 평택
- 2018 <우주극장>, 문화공간 숲도, 서울
- 2017 <20161227-신바람>, 성북예술창작터, 서울
- 2015 <논현동에서 놀자>, WEART Gallery, 서울
- 2014 <안녕>, 아트센터 나비, 서울
- 2013 <해찰.정>, 트렁크갤러리 81, 서울
- 2012 <Laundry;그림을 그리다>, 487 Gallery, 서울
- 2012 <일체유심조>, Gallery Synn, 서울

Major Group Shows

- 2022 <Common Minimalism>, 팔레드 서울, 서울
- 2022 <Horizontal Aesthetics>, mM 아트 센터, 평택
- 2022 <색다른 바다, 멈춘바다>, 통영 트리엔날레, 통영
- 2021 <접전>, 반쪽, 서울
- 2020 <Unfolding: 시작되는 끝>, 서울일삼 Gallery, 서울
- 2019 <곤대전>, 성북예술가압장, 서울
- 2019 <공공화원>, 최만린 미술관, 서울
- 2017 <1933 세계의 집>, 성북구립미술관, 서울
- 2016 <The beauty of movement in silence>, Wesleyan University, 코네티컷
- 2015 <Laundry-삶의 색>, 용두산미술전시관, 부산

Intro

압축의 시간

어느 최소주의자의 삶

A Life of the Common Minimalist

이지송의 작품은 영상의 유혹으로부터 사람들을 깨어나게 한다. 지난 30여년간 길 위를 떠돌면서 풍경을, 시간을 채집했다. 카메라를 가지고 놀 듯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드러나는 상황과 사건을 여러 시점으로 포착하여 하나의 장면을 구성한다. 작품은 수십 수백장의 다양한 앵글과 찍는 시도 속에서 수십 수백 시간의 영상을 10분 내외로 편집한 결과이며 다각도에서 포착한 순간을 하나의 장면으로 ‘축소’시키는 ‘기술적 상상력’의 결과이다. 철학자 빌렘 플루서(Vilém Flusser)는 디지털 사진기와 컴퓨터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통해 드러나는 ‘기술적 형상’을 0과 1이라는 숫자로 재현한 텍스트와 이미지의 이중 구조로 이루어진 추상이라 말한다. 따라서 기술적 형상으로 드러난 이미지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세계에 대한 텍스트(알고리즘)의 이미지인 것이다.

작가는 태평양 망망대해나, 미 대륙의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땅을 질주하는 장시간 동안 무심하게 찍어낸다. 찍은 이미지를 편집하여 두 채널 스크린에 사선으로 재현해서 엄청난 속도로 바다나 땅의 이미지를 움직이게 만들어 모니터와 스크린 속에서 분할하고 재배치한다. 이 과정에서 익숙한 이미지가 낯설게 느껴지면서 시각적 경험이 확장되고 촉각적으로 전환된다. 이것은 재배치된 이미지가 시간을 압축하여 감각을 증폭하고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찰나와 지연된 시간성, 그리고 조작된 시간성이 혼종하는 가상의 이미지가 펼쳐지며, 우리는 작품 앞에서 즉각적이고 실재적인 감각적 경험을 하게 된다. 이때에 현상학적인 순간, 압축적인 시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전시 <압축의 시간>은 지난 30여년간 길 위를 떠돌면서 영상으로 채집하여 편집한 작품들을 해체하고 형식화시켜 제작한 영상으로 시작한다. 이내 작가가 지금까지 제작한 영상 작품들이 다시 재료와 소재가 되어 작가 스스로 작품을 압축하고, 무화시키고 폐기하는 과정을 담아낸다. 자신의 모든 영상을 하나의 영상 속에 차곡차곡 쌓고 연결해 내는 과정은 작가가 작품 바깥에 서서 자기 작품 제작의 과정을 내려다보는 일련의 수행이다. 모든 색을 섞으면 검은색이 되기 마련이지만, 작가가 살아온 삶의 시간이 섞인 작품은 화려한 색을 만들어 낸다. 작가의 시간과 삶이 무겁게 담겨 있음에도 역설적으로 화려하고 풍요로운 것이다. 전시는 삶의 복잡함을 단순화하고 명료하게 인식하는 과정과 가볍고 화려하게 표출되는 이미지들을 보여준다. 이는 삶을 살아낼 가치가 있으며 나의 인식과 무관하게 이미 풍요로운 상태일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작가 이지송이 바라보는 세계, 즉 삶에 대한 태도이자 이미지이지 않을까.

Interview

이지송 개인전: 마침표와 심표, 다만 멈추지 않는 화살표

지난 삶의 끝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마침표. 여로에서 아무도 깊이 바라본 적 없는 대상을 채집할 때마다 멈추는 발걸음이 찍어 온 수많은 심표. 마치 춤을 추는 모스 부호처럼 이어진 이 삶의 부호들이 이어져 멈추지 않는 화살표를 이룬다. 그 자신도 방향을 모르는 화살촉이 웃다리문화촌에 잠시 착륙했다. 50년 만에 그림을 그리고, 있던 작품에서 새로운 색을 발견한다. 이지송 감독은 그것을 ‘삶의 맛’이라 부른다.

이번 전시의 부제는 ‘어느 최소주의자의 삶’입니다. 최소주의자란 이지송 감독님 스스로를 일컫는 말인가요?

아마도요? 상업적인 광고 일을 할 때에는 남의 일을 맡아 책임지며 작업을 해왔는데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활을 하다 굳이 예술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보자, 좀 더 편안하게 살아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 편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었거든요.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작업을 시도하면서 이전에 해왔던 것을 버려 나가며 새로운 걸 취해보기도 하고, 이전의 것을 버리진 않더라도 다른 것을 더해보기도 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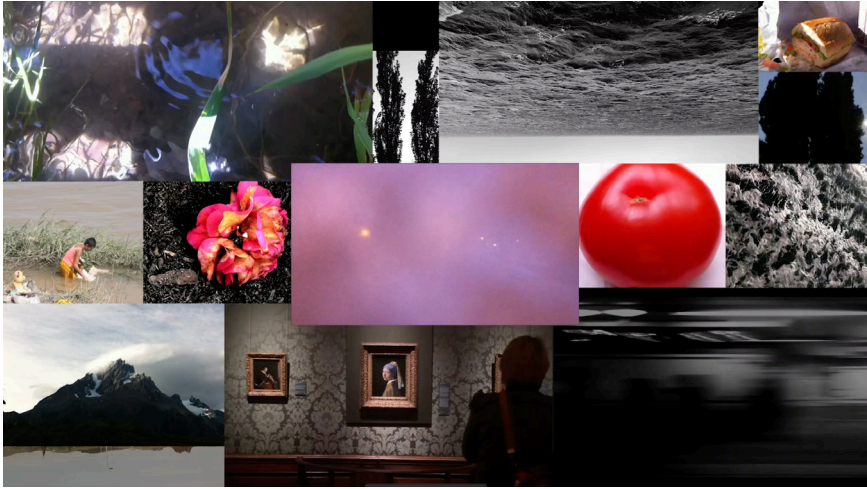
오랜 시간 큰 사랑을 받은 광고들을 만드시다가 영상 작가의 길로 들어서신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광고계에서 ‘은퇴’했다는 표현을 쓰시는 점이 인상에 남았습니다. 자연스레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기보다는 굳이 마침표를 찍으신 이유가 있는지요.

광고라든가 텔레비전 같은 매체를 둘러싼 직종에는 아주 화려한 면과 아주 어두운 면이

공존해요. 나는 거기에서 대체로 만족할 만한 생활을 했기에 화려한 축에 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계통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괜찮지만, 그곳을 떠나고도 계속 근처에서 얼쩡댄다면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그래서 비록 생각보다 20년 정도는 늦어졌지만 은퇴 선언을 한 데에는 내가 앞으로 이 주변을 맴돌지 않겠다, 새로운 것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었죠.

광고를 찍을 때도 많은 곳을 다녔지만 모두 일의 연장이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진, 영상 작가들도 촬영 자체를 위한 출사를 흔히 다니곤 하죠. 그런 것과 선생님의 여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광고 촬영을 할 때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여행을 많이 했죠. 남의 자본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곳, 가기가 쉽지 않은 곳을 다니곤 했는데도 철저하게 일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즐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여행을 했다 싶은 게 2009년 홀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을 때예요. 그때는 영화적인 속성에 굉장히 매료되어



이지송, <easy song>, 다채널 비디오, 무한루프, 2011-2023

있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볼 심산으로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며 촬영을 했기 때문에 원래 800km인 길이지만 나는 아마 2000km 정도를 걸었을 거예요. 나는 영상을 찍는다고보다는 ‘채취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길을 가다가 느낌이 괜찮으면 탁 주워 넣듯이 그걸 취해서 영상으로 담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시작된 것 같아요.

처음 홀로, 제대로 떠나신 여행에서도 카메라를 놓지 않으셨네요.

놓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비디오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 광고 촬영을 할 때는 스태프들이 있으니 내가 굳이 장비를 들고 다니거나 편집을 직접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걸 처음 혼자 다 해야 했을 때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때를 계기로 마치 불가에서 스님들이 겨울 동안 동안거에 들어가듯이, 다만 나는 바깥을 향해서 매년 겨울 동안 3개월 정도 여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행지는 어떻게 고르시나요? 미리 생각한 화두와 연결 지어, 의미를 담아 선택하시나요?

떠나기 전에 생각에 빠져 화두를 정할 때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꼭 여행지와 연결하는 것 같진 않아요.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 전, 심지어는 며칠 전에 꿈틀대며 ‘어디로 가야지’, ‘여기 어떨까’하는 느낌을 받고 빠른 시간 안에 정보를 구해 맞아떨어지는 곳으로 다녔어요. 특히 경유를 하다보면 뉴욕을 자주 가게 되는데 그 도시를 아주 좋아해요. 거기서 남미, 중미, 유럽으로 다 갈 수 있다는 게 편리하기도 하지만, 그림을 떠나 있던 사람으로서 뉴욕에 가면 오랜만에 많은 미술관과 박물관을 돌아볼 수 있잖아요. 마치 순례를 하거나 눈을 씻어내는 느낌이라고 할까.

많이들 물어보시죠, 어디가 가장 좋으셨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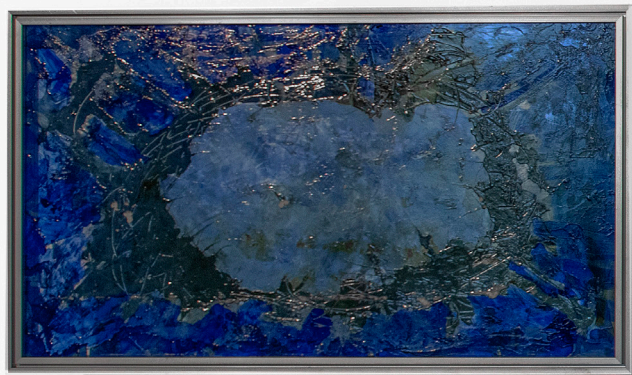
늘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그런 질문을 많이 듣죠. 관광지는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하는데 ‘거기는 정말 좋다’고 해서 가봐도 실망을 하기도 하고 아주 별것도 아닌 시골구석에서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하는 감동을 받을 때도 있어요. 내가 언제 가서 어느 상황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가 가장 좋으나 하면 나와 때가 맞는 곳이라고 하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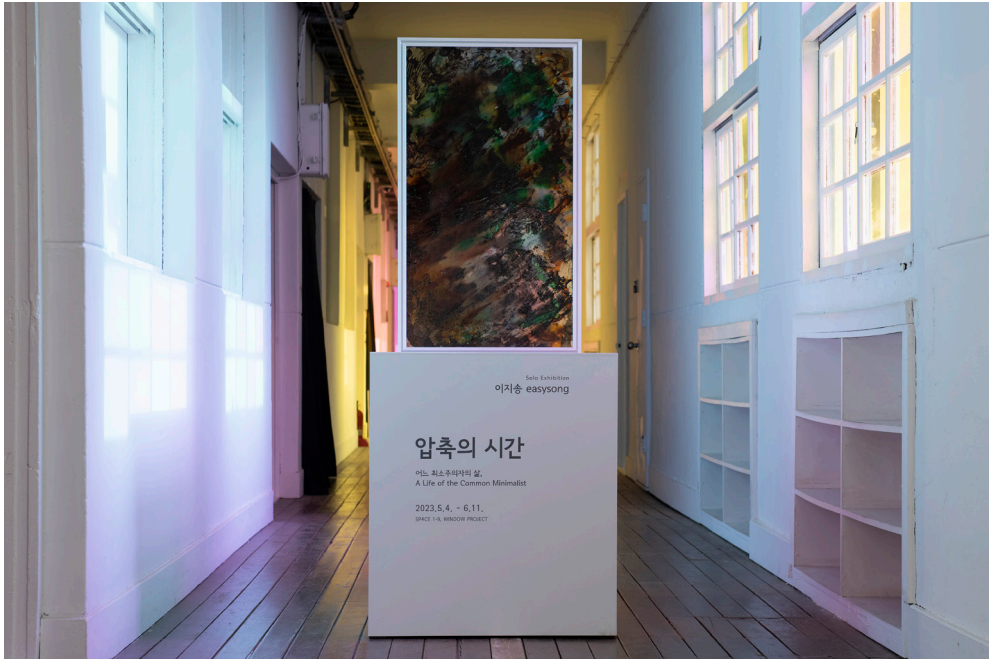
이지송, <자화상>, 혼합매체, 110x63cm, 2023

이지송, <untitled>, 혼합매체, 63x110cm, 2023

이지송, <untitled>, 혼합매체, 63x110cm, 2023



(위) 이지송, <아이슬란드>, 혼합매체, 63x110cm, 2023
(아래) 이지송, <아이슬란드>, 혼합매체, 63x110cm, 2023



(왼쪽) 이지송, <untitled>, 혼합매체, 110x63cm, 2023

(오른쪽) 이지송, <사랑의 낙서>, 혼합매체, 다채널 비디오, 가변크기, 무한루프, 2023



연출하고자 하는 분위기에 따라 여러 대의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며 촬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비디오키메라가 좋다고들 하는 소니, 니콘에서 나온 큰 카메라들을 가지고 다녔는데 너무 무거워요.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찰나의 순간을 만났을 때도 그걸 꺼내서 조립을 하고 있으면 다 지나가고 날아가 버리니까요. 그러다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사용해 보게 됐고, 뉴욕에서 기차 여행을 하다 욕심이 나서 중간에 내려 애플스토어에 들러서 하나를 더 사기도 하면서 늘어났죠. 그다음엔 갤럭시는 어떤가 궁금해서 하나 구해보고. 이제는 항상 그 두 대를 갖고 다녀요. 한 대는 카메라로만 쓰니까 좀 억울한 생각도 들지만 장비로 생각하면 그럴 것도 없지요. (웃음)

하나의 작품에 한 여행에서 찍으신 영상만을 사용하시나요?

거의 그래요. 여행을 떠날 때는 보통 두 가지의 영상을 나누어 찍어요. 일단 여행을 다니다 보면 거의 풍경 위주로 촬영을 하게끔 되는데, 보통 남들이 그런 건 이미 다 찍어 놓았죠. 그러다

보니 남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것, 아주 평범하기 때문에 지나치는 것들 속에서 내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쪽이 주로 내 사유를 담아내는 영상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오래된 숙제 같은 건데,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런데 못 그리겠어. 그려본 지도 너무 오래되고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영상 회화’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 한편으로는 그런 식으로 회화적인 작업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찍는 거죠.

회화 작업에 가까운 작품들에서는 굉장히 고요한 영상들을 소스로 매우 강렬한 형상을 만들어 낸다는 인상을 받았습시다. 그런 간극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요?

적어도 한 달 이상 여행을 한다고 치면 그만큼의 시간을 혼자 보내잖아요? 더군다나 말도 못 하는 놈이. (웃음) 그러니 생각이 멈추질 않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생각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영똥하다’고 할 법한 곳까지 다다르는 거예요. 그걸 실행해 보는 거지요. 예를 들어 ‘평지에 차들이 막 달리는데, 이걸 정상적으로 하나 찍고



이지송, <75분의 1초>, 단채널 비디오, 10분 29초, 2011

사각으로 하나 찍어서 돌을 붙여놓으면 차가 하늘까지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기차를 타고 갈 때 카메라 한 대는 창에 딱 붙여 지나가는 풍경을 찍고, 카메라 두 대를 조금씩 틀어 각각 앞과 뒤를 찍으면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안데스산맥을 넘어가는 버스에서 전후좌우에 카메라를 달아 한 번에 촬영해 본 적도 있어요. 영상을 찍어서 쌓아놓고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정 중에 즉석에서 생각난 것들을 내가 가진 최소 장비로 해보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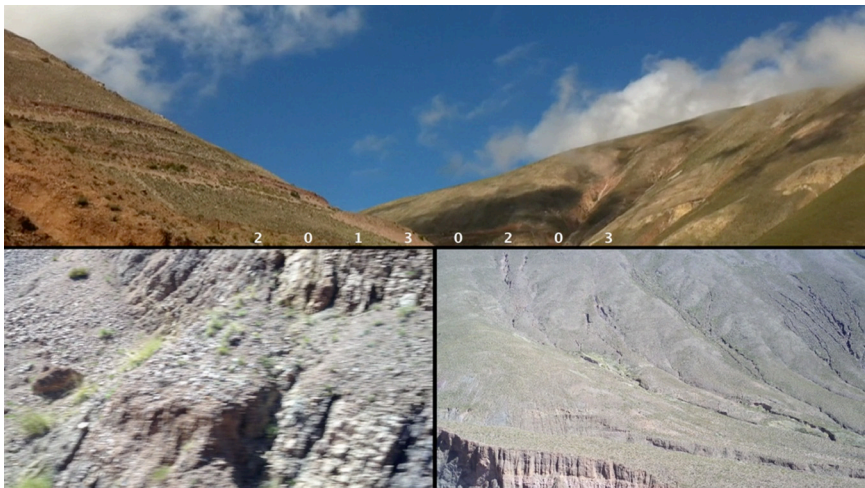
전시 소개글에서는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들을 화려하고, 가볍고, 풍요롭다고 묘사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의도하셨나요?

이번에 두 가지 작업을 새로 했는데, 하나는 전시 제목과 같이 그야말로 '압축의 시간'을 담고 있어요. 2011년부터 여행하며 찍은 영상들을 10분의 1로 축소시켜서 책꽂이처럼 주루룩 이어놓는 작업인데, 하다 보니 너무 설명적으로 보여서 단면마다 하나하나 색깔을 입혔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디자인 같기도 하고 가벼워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 'Laundry'

시리즈라고 제가 계속해 오고 있는 작업 중에 세탁기에 돌아가는 빨래들의 여러 색들을 담아낸 것이 있는데, 그걸 면으로 한번 뽑아내는 시도를 해봤어요. 거기서도 면의 색깔의 변화가 주로 보이다 보니 가볍고 화려해 보이죠. 그게 '최소주의자'라는 말과도 이어지는 것 같고요.

작업이나 전시를 하실 때 시각적인 표현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

작가로서 어떤 한 분야만 파고들면서 작업을 했다면 달랐겠지만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 이번 전시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왜 나에게 전시를 하자고 했을까', '여기에 어떤 작업을 선보여야 맞나' 자문을 많이 했어요. 장소성이나 시간성과 좋게 얘기하면 공유, 공존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타협하는 태도를 내가 좀 취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가족 단위의 관객이 많이 오고, 어린이아들한테 보여주는 경우도 많을 텐데 여기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들을 거는 게 맞는지 고민을 했죠. 그렇게 주변을 폭넓게 생각해 보고 타깃층을 생각하는 게 아마 내가 광고를 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속성 같기도 해요.



이지송, <안데스 산맥, 3개의 시점>, 단채널 비디오, 7분 39초, 2013



이지송, <138개의 압축된 시간>, 단채널 비디오, 무한루프, 2022-2023



이지송, <91개의 압축의 시간>, 단체널 비디오, 무한루프, 2018-2023

이번 전시에는 어떤 방식으로 영상을 선보이시나요?

사실 지금 숙제가 있는데, 50년 만에 그림을 그려요. 글썄, 아까는 못 그리겠다고 하긴 했는데. (웃음)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카메라로, 영상 회화로 표현했다면 이번에는 내 영상을 실제 회화와 결합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 보니 캔버스에 그릴 수도 있지만 영상이 투과되는 재질에 그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Laundry’에서 뽑아낸 색깔을 조형적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서 그걸 구현할 방법도 모색 중이고요.

누군가를 두고 범인이다 아니다, 범상하다 범상치 않다는 표현들을 흔히 사용하곤 하지요. 감독님께서서는 활동을 시작하신 이래로 한 번도 범상한 삶을 살아오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모범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지요. 규범적이거나 경직되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행동, 생각이 자유롭기는 한 것 같아요. 평범하게 살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얼마나 더 살지 몰라도 사는 맛이 있는 게 있는데. (웃음).

Holoubek/백토담의 인터랙티브 아트 작품이 SPACE2에서 전시가 되었는데 어떤 계기로 함께 하게 되었나요?

웃다리문화촌의 히스토리를 봤을 때 가족 단위, 어린아이들의 참여 프로그램이 인상 깊었어요. 미국친구 Holoubek/백토담이 관객과 소통되는 작업을 일관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지송과 친구들로 초대하게 되었죠.

이번 전시는 감독님의 여정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의 시작의 끝이고 또 하나의 시작. 그래서 하나를 압축 시킨 시간들이고, 또 하나를 풀어가고 해체했어요. 내가 이번에 가장 보람있는 것은 50년만에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13여년 동안 여행하면서 찍었던 작업들을 한번 압축시켜서 책장에 한 묶음으로 넣어놓고, 또 다른 시작을 웃다리문화촌에서 펼친 계기가 되었어요.

다음에는 어디로 떠나십니까?

항상 몰라요.



Holoubek/백토담, <나의 지형학>, 상호 작용 디지털 설치, 2023



이지송, <지하철, 4개의 시간>, 단채널 비디오, 3분 14초,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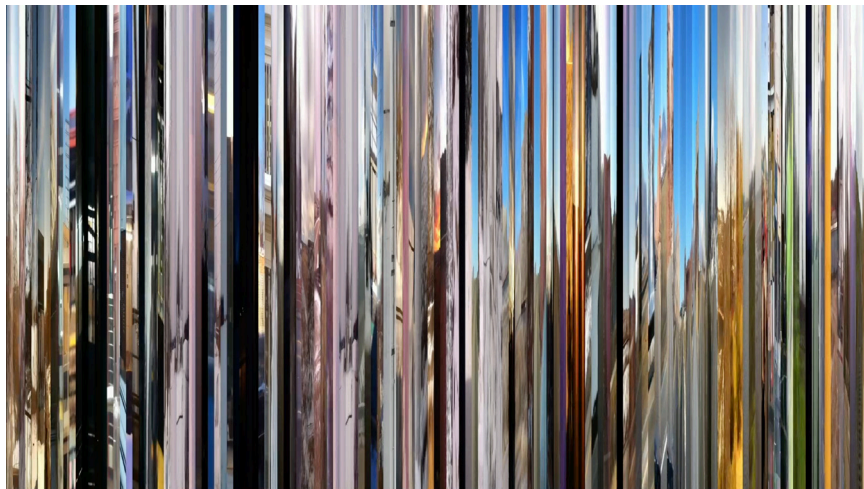
이지송, <떨어져 다시 핀 꽃>, 단채널 비디오, Sound 지박, 4분 28초, 2018

압축의 시간

어느 최소주의자의 삶

A Life of the Common Minimalist

2023.5.4-6.11



이지송, <138개의 기록>, 단채널 비디오, 무한루프, 2022-2023

압축의 시간

2023.5.4-6.11

오픈 리셉션

2023.5.13 11:00

발행인 평택문화원장 이보선

발행처 평택문화원

발행일 2023.5.4

주최·주관 평택문화원, 웃다리문화촌

전시기획총괄 웃다리문화촌장 조혜경

전시큐레이터 강수진

전시운영 박송이, 김한슬

도움주신 분 이정태, 박지인, 박예하

김수철, (주)명성미디어

© Complex Cultural Space WOODDALI CULTURE VILLAGE All right reserved.
No part of this catalogue maybe reproduced or utilized in any from of by
any means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from Complex Cultural Space
WOODDALI CULTURE VILLAGE

복합문화공간 웃다리문화촌

(17788)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용소금각로 438-14

관람시간 09:00-18:00 월요일 휴관

관람문의 031.667.0011

Complex Cultural Space

Wootdali Culture Village

(17788) 438-14, Yongsogeumgak-ro, Seotan-myeon,

Pyeongtaek-si, Gyeonggi-do, Korea

Opening Hours 09:00-18:00 Closed on Mondays

Inquiry +82.031.667.0011